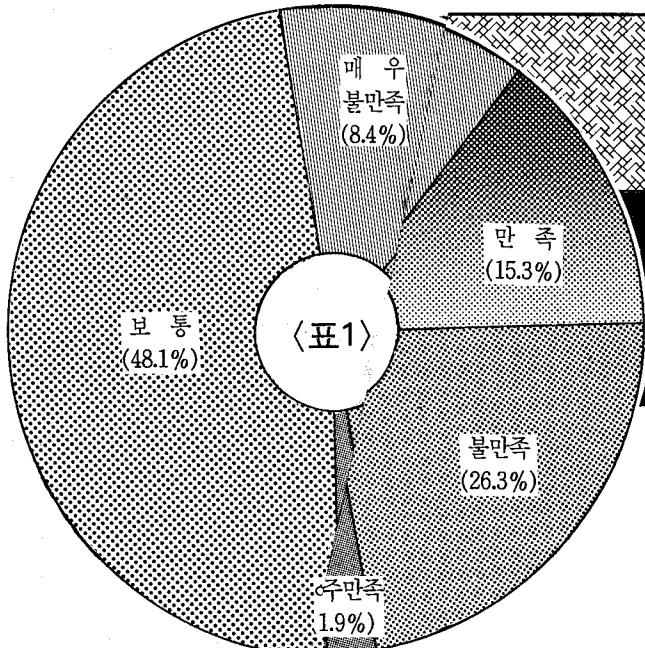




요즈음 학내 제반 교육·학·복지문제에 대해 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가 분출되고 있어, 대학이 시급함을 나타내 주었다.

이에 본보는 서울캠퍼스인문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특히 심각하게 지적되었던 도서관 이용문제에 대해 점검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보는 도서관 이용하는 학생들이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는 열람실 부족·책갈신 부족·이용시간 등에 대해 현 실태와 문제점, 원인을 파악,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 (편집자 주)

대학을 흔히 말할 때 학문과 사상 탐구의 장이라고 말한다. 자유로이 학문에 대해 탐구하고 고민하여 사회에 진출했을 때 올바르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인간을 만드는 곳이 대학이라든가, 이러한 역할에 부응하기 위해 대학은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수하인 권복지위원회(이하 인복지위)가 지난달 22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 학생들이 도서관 이용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중양도서관 출입 학생 1천명에게 설문지를 배포, 4백16명이 응답한 도서관 이용 실태에 관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의 학생들이 불만을 표시, 도서관 문제가 심각함을 드러냈다. 학생들이 가장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는 2백77명이 지적한 열람실 부족이었다. 〈표2〉

본교 중앙도서관에는 8개의 열람실이 있는데 이는 서강대, 서울대 도서관 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타대학에 비해 열악

포화상태 이른 중앙도서관

설문조사-중앙도서관 시설 만족도

하다. 한편 국문과 김군의 “각 단과대에 열람실이 있지만 시설이나 정보를 교환하는데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을 자주 이용한다”는 말에서 중앙도서관으로 학생들이 집중되어 불편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 두번재로 많이 지적된 문

생들이 환기의 문제도 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나타내 주었다. 공기정화의 경우 학생들의 학습 효과와 함께 건강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한층 더하다 하겠다.

중앙도서관의 환기장치로는 제1, 2열람실에 2대와 휴게실 2대,

관에 설치돼 있는 냉난방기는 제1, 2, 3, 5열람실에 에어컨 1대와 나머지 열람실에 선풍기 3대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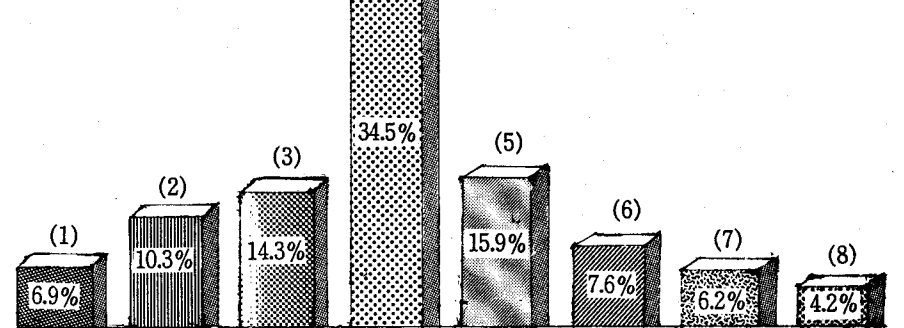
이와 같은 시설상 문제는 학생들이 최적의 조건에서 공부하도록 해 주는 최소한의 노력인 점을 생각해 볼 때 관계당국은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을 위해 가능한 것부터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점은 응답자중 61명이 제기한 일반열람실과 34명이 지적한 개가식 열람실 이용시간 등 도서관 전체 이용시간 문제였다.

중앙도서관의 경우 일반열람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개가식 열람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12시30분까지)로 비교적 짧은 편이다.

개가식열람실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연장을 바라고 있으며 그

〈표2〉



◇도서관 이용시 불편한 사항

- (1) 휴게실 부족
- (2) 냉난방 시설 미비
- (3) 환기 부족
- (4) 열람실 부족

- (5) 책갈신 부족
- (6) 이용시간이 짧다
- (7) 도난사고 발생
- (8) 개가식 열람실 개방시간이 짧다

응답) 등 복지와 환경문제도 거론됐다.

현재 중앙도서관에는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곳이 여학생휴게실을

식시설(벤치나 탁자등) 설치등을 빠른 시일내에 시작해야 할 것이

다. 또한 도난사고와 자리잡아주기 등 건전한 도서관 문화 정착도 지적되었다.

도난사고의 경우 카세트, 사진, 원서 등이 빈번히 도둑맞아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도난사고 예방책으로는 마그네틱카드 발급,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들이 있겠으며 이와 함께 학생들도 열람실에 앉은 사람에 대해 조그만 관심이

라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험때 특히 심하게 나타나는 ‘자리잡아주기’도 도서관 문화중 하나의 병폐로 지적되었다.

자기 주위의 몇몇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면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복지위원회는 오늘부터 1인1좌석제 실현을 위한 색깔별 카드를 발급, 대체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열람실 부족과 올바른 도서관 문화 정착이라 하겠다.

관계당국은 더욱 더 능동적인 자세로 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학생들도 도서관 문화 창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기태 기자)

이용학생 80% 이상 불만족 시설확장, 개가열람실 운영시간 연장필요

제3열람실 1대등의 공기청정기가 고장이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던 부분은 열람실 냉난방 효과 문제였다. 현재 중앙도서관

성격이나 역할을 보아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위에서 제기했던 학습과 필적히 관련된 부분 이외에도 휴게실 부족(55명 응답), 도난사고(50명

포함) 2곳인데 이 수는 이용 학생수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관계당국은 휴게실 확보와 도서관 앞 휴



오세운
(본보 취재부장)

□매너리즘의 팽배□

매너리즘이란 일반적으로 사물의 독창성없이 늘 같은 수법을 되풀이하여 예술의 생기가 생명력을 잃은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흔히 문학작품이나 예술창작활동을 평할때 예술가가 창조력을 상실하고 하나의 타성적인 수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를 말함이다.

학생회 또한 학내 대중사업을 해나감에 있어서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정태적이고 연례적인 대중사업들을 해나갈때 매너리즘에 빠졌다고들 이른다.

세계 여러나라의 사회주의 혁명중에 나오는 중국의 모택동과 러시아의 레닌은 거의 영웅으로까지 각 나라에서 추앙받고 있다. 이들은 혁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대중을 어느 계급에 둘 것이냐 대중의 이해와 요구는 무엇인가에 대해 항상 고민했으며 가장 능동적으로 대처했다는 사람들의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그렇게했기 때문에 사회주의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수 있었다는 것은 제론의 여지가 없다.

□현재는 어떠한가?□

개강을 한지 한달 남짓 지난 현 시기 총학은 등록금의 협의타결을 끝내고 4월을 맞이하였다. 그런데 학내의 분위

이것은 등록금과 더불어 납부하게 되는 학생회비의 납부에 대한 일부에서의 이의제기등이 있었음을 볼때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면 학내대중의 참여와 관심을 저하시킨 요인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우선 총학생회의 사업이 공개성의 원칙에 입각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 발원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의 입장정리가 안되어 있어 알릴 수가 없습니다’라는 학생회의 한 건부의

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매번 집회를 하면 2백여명의 학생밖에 모이지 않는 지금, 목표영향도의 호응도에 만족하고 안주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집회에 참가한 2, 3백여명의 학생들을 제외하면 8천여명이 넘는 학생들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총학이 학생대중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다.

□대중속에서 대중속으로□

모택동의 ‘대중속에서 대중속으로’라는 말은 대중과 같이 간부가 호흡하고 같이 생활해 나가면서 여러계층과 분야에서 분출되는 요구들을 수렴해야 한다는 말이며 또한 그러한 요구들을 수렴하여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이를 대중에 맞게 집행시키는 사업을 해 가야 된다는 말이다.

대중조직이 사업을 해나가는 것은 대중을 위한 사업을 해나간다는 말이다.

또한 대중사업은 선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것과 그 후에 해결해나가는 사업들이 서로 구별이 있어야 하며 선결적인 사업은 대중의 이해와 요구가 수렴된 상황에서 진행해야 바람직 할 것이다.

앞으로 수반 총학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라도 매너리즘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벗어나야 할 매너리즘

기는 침체되어 있는 느낌이다. 지난 9일의 고이수병동문추모제를 발판삼아 4·19제승주년을 맞이했으나 학생대중들은 거의 하거나 말거나식의 무관심으로 일관했음을 보았다. 또한 총학의 행사 또한 아주 약소(?)했으며 참가하는 학생들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다.

예년의 경우 4·19주전행사 경우는 대중들과 거의 비견할 정도로 학생회제계가 바빠 움직였으며 학내분위기 또한 고조되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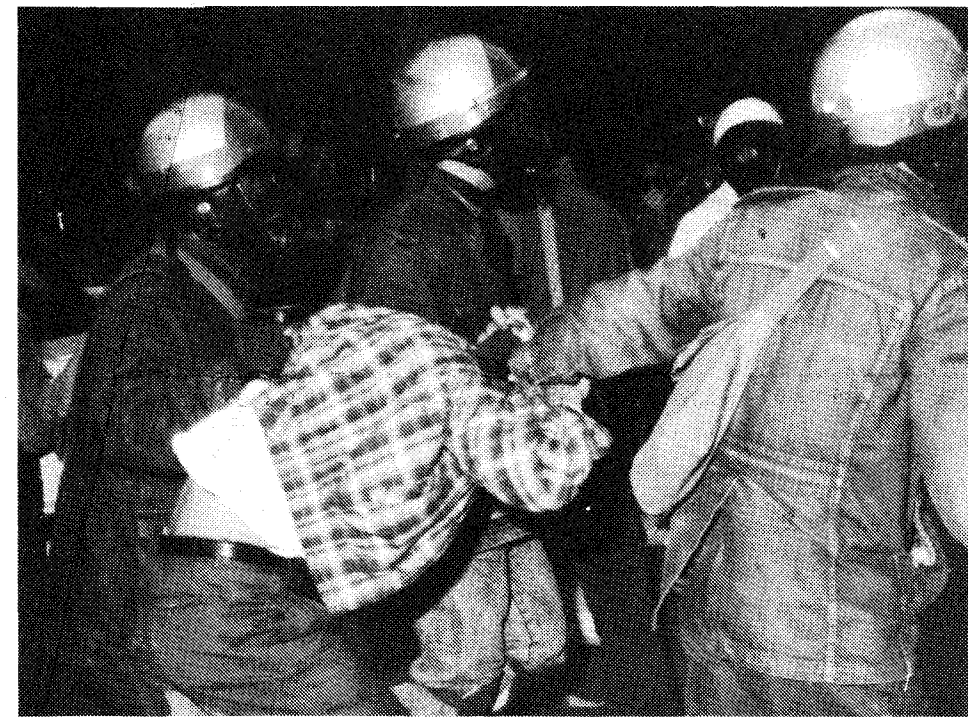
이상과같은 현상은 바로 총학생회나 학생처에 대한 학생대중의 무관심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발원은 공개적이지 못한, 즉 폐쇄적인 총학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일이라 할 것이다.

물론 조직을 운영하고, 또한 대외적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협상의 원활함을 기하기위해 공개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것은 학생회의 학생들에 대한 관심도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가 될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밖에도 학생회사업들이 매번 정태적인 사업으로 매워진다는 것도 그 이유중의 하나가 될것이다.

물론 목표영향도같은 것은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용하여 비교적 성공적



“4·19정신 계승하여 비리정권

부패정권 노태우정권 타도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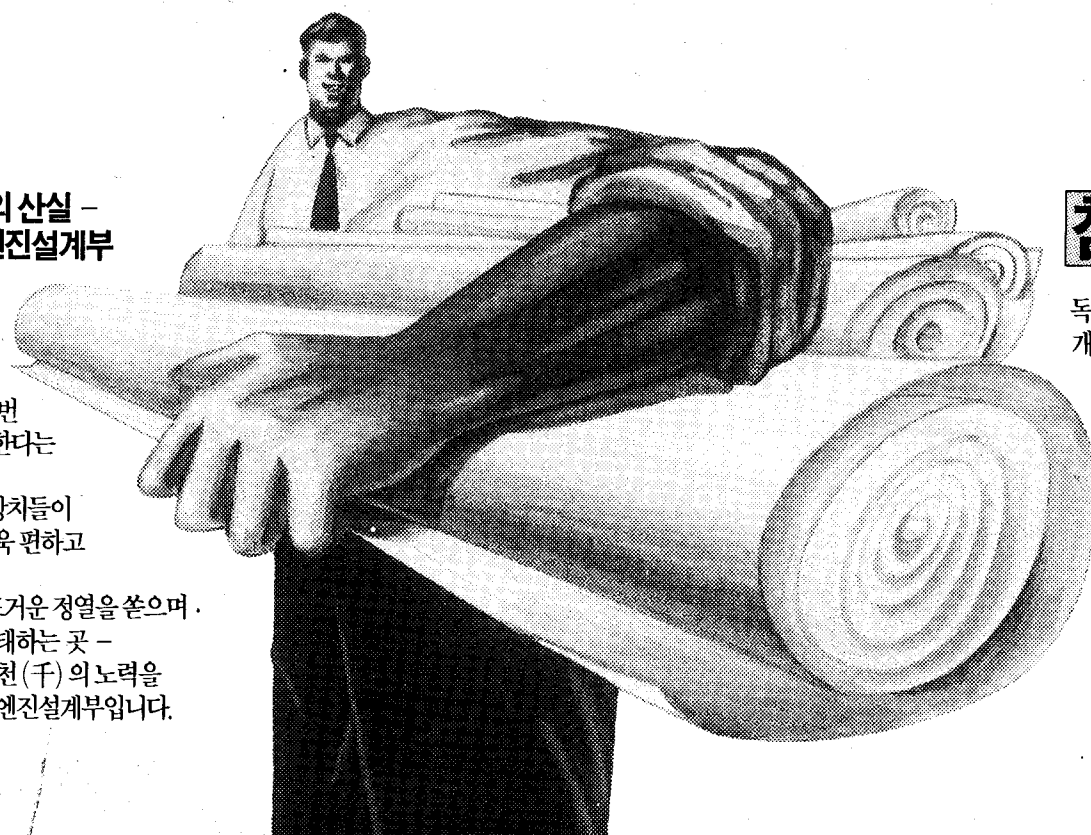
지난 19일 4·19 31주년을 맞아 5천여명의 시민과 학생들은 장권의 폭압속에 2시간여동안 격렬한 시위를 전개했다. 백골단의 발길질도 일시적일뿐 거리의 “파소타도”함성은 종로일대를 울려 퍼졌다. (방현기 기자)

현 재
취 재

하이테크의 숨결이 깃든 단1장의 엔진설계도 - 자동차 한국의 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기술의 산실 - 마북리연구소 엔진설계부

20세기 과학 문명의 꽃 - 자동차의 엔진 / 그랜드 기술계약체인 첨단 엔진개발을 위해 수백만 이상이나 설계 도면을 수정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만여 가지의 부품과 기계장치들이 조화를 이뤄 인간생활을 더욱 편하고 유익하게 하는 자동차 / 설계 도면 한장 한장마다 뜨거운 정열을 쏟으며, 첨단 자동차엔진의 꿈을 잉태하는 곳 - 이곳이 완벽한 하나를 위해 천(千)의 노력을 다하는 현대 마북리 연구소 엔진설계부입니다.



첨 단자동차 기술 - 우리가 이끌어간다.

독자적인 기술로 고유 모델의 엔진을 개발하는 일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초가 뒤따른다. 연비 향상을 위한 엔진의 경량화, 고성능화 및 저공해화를 위해 개념 설계에서부터 상품생산에 확정하는 최종 도면에 이르기까지 - 완벽한 하나를 위해 수개월, 수백만의 설계 변경을 감내해야 하는 엔진설계부의 연구진들 / 오늘도 이들은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 창조정신과 도전정신으로 한국 자동차기술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 직, 도전하는 자만이 성취할 수 있다.

지금쯤, 캠퍼스의 도서관 책더미속에서, 운동장에서, 실험실습실에서, 연구 무대에서, 동아리방에서 멋진 학생생활을 꾸리고 있는 대학생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패기와 정열로 가득찬 젊은 엘리트들의 모습에 부러움을 느꼈고 동시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기 쉬운 진리의 길에서 굳건하게 도전하며 목표를 성취하는 이들의 젊은이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나누며, 미래를 꿈꾸며
현대자동차가 밝은 내일을 추구해갑니다.

현대自動車